전국 최초 자연유적 훼손 사건 판결

—풍경구서 바위에 못 박은 암벽등반자들의 형사책임 추궁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10년 동안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0건의 환경자원 관련 재판 사건을 발표했다. 그중 '장모명, 모모명, 장모의 명승고적 고의훼손 사건과 강서성 상요시인민검찰원에서 장모명, 모모명,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생태파괴 민사공익소송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2017년 4월, 장모명, 모모명, 장모 셋은 삼청산풍경구 거망봉을 등반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4월 15일 새벽, 이들은 전기드릴, 암못, 망치, 바줄 등 도구를 지니고 거망봉 아래에 도착했다. 등반 과정에서 장모명은 암벽에 못을 박고 모모명과 장모는 장모명이 설치해준 암못과 바줄을 따라 등반했다. 이들은 서로 협동하여 거망봉의 정상까지 툐아올랐다. 현장 조사를 거쳐 장모명은 거망봉에 암못 26개를 박았다.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이번 '거망봉 사건의 가치 손실 평가치'는 해당 사건으로 거망봉의 비사용가치에 초래한 손실의 최저한계치인 1,190만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검찰기관은 형사공소와 민사공익소송을 각기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효력을 발생한 형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풍경명승구의 핵심풍경구는 우리 나라 형법의 보호를 받는 명승고적이다. 삼청산풍경명승구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명부에 올랐고 거망봉 지질유적지는 진귀한 표지성 경관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중대한 과학적 가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피고인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사회관리 질서를 위반하고 파괴성 등반 방식으로 거망봉을 훼손시켰는바 그 정상이 심각하고 행위가 명승고적 고의훼손죄를 구성한다. 하여 장모명을 유기징역 1년에 처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모명을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고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장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사판결을 내렸다. 생태환경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토대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은 자연유적, 풍경명승지를 환경요소로 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생태환경 파괴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암벽에 못을 박는 방식으로 등반하여 거망봉에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쳤기에 공동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거망봉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희귀성, 장모명, 모모명, 장모의 행위가 초래한 후과의 심각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광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세 사람의 경제조건과 배상 능력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환경자원 손실 600만원을 련대배상하고 전문가 비용 15만원 지불 판결을 내리고 전국 매체에 공고를 게재하여 사회대중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삼청산풍경명승구는 재생이 불가능한 희소한 자연자원성 자산이고 지속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자연자산으로서 국가 법률의 중점 보호를 받는다. 이 사건은 전국 최초로 자연유적을 고의로 훼손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사건이며 또한 전국 최초로 검찰기관에서 자연유적 훼손과 관련하여 제기한 생태파괴 민사공익소송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각기 지도성 사례로 확정, 이는 법률의 통일 적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명승고적의 보호와 복원을 촉진하고 정확한 생태문명관을 수립하도록 대중들을 인도하며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소중히 여길 데 대한 중요한 시범 역할로 된다고 강조했다.

/ 인민일보

위챗 채팅 기록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위챗은 사람들 사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소통 도구중의 하나로 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 증거에서 위챗 기록의 분량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위챗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가?

● 어떻게 위챗 증거를 제출할가?

1. 량측의 개인정보 화면을 제출한다. 개인정보 화면에는 프로필 사진, 닉네임, 위챗 계좌, 지역 등 정보가 포함되여있어 당사자 신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위챗 채팅 기록이 완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위챗 채팅 기록을 제출할 때는 완전하고 끊김이 없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도 안되고 법원에 삭제되였거나 혹은 편집된 채팅 기록을 제출해서도 안된다.

● 어떻게 위챗 증거를 보존하고 고정할가?

1. 휴대폰의 원래 매개체를 잘 보관해야 한다. 위챗 기능중 '원클릭 슬리밍'(一键瘦身) '쓰레기청소'(清理垃圾) 등 자동청소 기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채팅 내용은 청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증거 보존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휴대폰 교체, 휴대폰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원래 휴대폰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핵심 내용에 대한 증거 보존을 권장한다. 당사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거나 위챗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어떻게 법정에 위챗 증거를 제시할가?

1. 위챗계정 소유자는 법정에서 위챗에 로그인하여 로그인 시 사용하는 계정 이름을 보여주어야 한다.

2. 본인의 주소록에서 상대 사용자를 찾고 클릭해서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정보 화면에서 상대방의 비고 이름, 닉네임, 위챗계정, 핸드폰번호 등 관련 내용을 법원에 보여줘야 한다.

3. 개인정보 화면에서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여 통신대화창에 들어가 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고 텍스트 파일, 그림, 오디오, 비디오, 계좌이체 또는 홍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클릭해야 한다.

4. 계좌이체 정보를 보여줄 때 통신대화창의 채팅 세부 정보·계좌이체 기록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지불정보를 보여줘야 한다. / 인민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국제무역에서 이런 증빙서류 꼭 잘 챙겨야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 소송 승소

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증빙서류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되였다. 본 사건은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립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호적지가 산동성 모 현인 원고 유씨는 2020년 한해 동안 한국인 피고 박씨에게 약 1억 9,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중국 식품을 공급했으나 박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유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7,936만 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박씨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의 대응 : 적반하장식 답변

피고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유씨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유씨로부터 받은 중국 식품의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며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물품 납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리유로 미수금 청구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씨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 : 유씨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유씨가 제시한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구 내용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씨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며, 2020년 12월 4일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7만 6,977위안(주 : 인민페 원)에 이른다고 명시되였다.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후, 법원은 박씨가 남은 대금 79,315,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는 년 6%, 이후 완납 시점까지는 년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중요성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리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 모든 거래의 조건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 일정, 결제 기한 및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여야 하며 량측의 서명 및 도장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2. **납품 증빙서류 확보 및 보관** :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인수증, 송장, 배송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된 물품의 수령과 결제 의무를 립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각 서류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일자를 포함하여 납품 절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3. **대금 지급 관련 기록 관리** : 대금 지급 시 일자, 금액, 결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결제 령수증이나 은행 이체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된 시점마다 부분 결제 기록을 남겨 나중에 지급 리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 이체 내역을 백업(备份)하고 결제 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며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4. **통관 및 세관 관련 서류 관리** : 국제 거래 시에는 물품이 적법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관서류나 세관 확인서도 중요하다. 세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수출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추가** :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을 받거나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증빙서류만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반하장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뒤받침된다면 승소할 수 있는바 무역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된다.

/ 유경봉기자

'뭘 보냐'며 손찌검한 인터넷 지명수배범 연변서 검거

일전, 훈춘시공안국 형사수사대대는 인터넷 지명수배범 진모모(남, 한족, 34세, 훈춘시 사람)를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진씨는 지난 9월 산동성 제남시 력하구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한 길목에서 내렸다. 이때 마침 피해자 왕모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진모모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진모모는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와 왕모에게 구타를 가해 상처를 입혔다. 사후 법의가 감정한 데 의하면 왕모의 상처는 경상 2급에 달했다.

그후 진모모는 도주하였고 산동성 제남시공안국 력하구분국에 의해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등록되였다. 일전, 훈춘시공안국 형사수사대대 경찰들은 업무 과정에서 고의상해죄로 수배당한 진모모가 훈춘시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단서를 얻은 후 형사수사대대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즉시 경찰력을 조직하여 진모모에 대한 체포 행동을 실시했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경찰은 훈춘시 정화가두의 한 민가에서 진모모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 심문을 거쳐 진모모는 인차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일전, 범죄혐의자 진모모는 이미 산동성 제남시 경찰측에 인도되였으며 사건은 진일보 수사처리중에 있다.

/ 연변조간

시례로 법 말하기 -11

애완동물에 물린 경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사례

성도에 사는 정씨는 아키타견(秋田犬)을 키웠다. 어느 날 그가 아빠트단지 정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이웃인 장씨가 마침 그곳을 지나갔다. 장씨는 아키타견이 사랑스러워 장난치려 하다가 뜻밖에도 아키타견에 물리고 말았다.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아키타견은 현지에서 규정한 공격적 견종(犬种)으로서 장씨가 개와 장난치려 한 행위가 있든 없든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을 금지한 공격적 견종 등 위험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인은 마땅히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 침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민법전 제12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 침해자의 고의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백산변경관리지대 비밀보호 선전교양활동 전개

최근, 백산변경관리지대, 백산시당위 판공실, 백산시국가비밀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비밀보호 선전교양활동이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 있었다.

이번 활동은 백산변경관리지대의 '변경에 비밀 진입, 4급 련합 건설' 계렬 활동 포치에 따라 장백변경관리대대의 '변경선봉, 장백호위' 당건설련합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비밀보호 원소'를 융합시켰다. 또한 경찰과 군중들로 3개 팀을 구성해 순서대로 상응한 임무를 완수하면 최종 승리하게 되는바 경찰과 군중들이 게임 속에서 비밀보호 관련 지식을 보급받도록 했다.

활동 과정에 세 팀의 팀원들은 비밀선전전시판에 앞다투어 서명하고 장백천년애성풍경구 등 여러 곳에서 리론과 실제를 결부하여 '당신의 비밀 내가 맞추기', '비밀 루설자 붙잡기' 등 게임을 진행하는 한편 강연의 방식으로 관련 비밀 지식과 기능을 보급했다.

참가들은 "이번 활동은 한차례 비밀선전 교양활동의 이색적인 체험이였다.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경찰과 대중이 함께 든든한 비밀보안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긍정했다.

/ 리준량(李俊良), 류명양(刘明阳), 최창남